

로컬뉴스



부안서림지구대 교통시설물 점검

부안경찰서(서장 강현신) 서림지구대(지구대장 강종삼)는 교통사고 및 교통불편 민원 다발 구간 등 관내 도로 취약지점에 대해 교통안전시설물 안전점검을 가졌다.

이날 점검에서는 파손과 유실오염 훼손된 교통시설물을 파악하고 비탈어지거나 찌그러진 교통표지판을 고쳤다.

이와 함께 서림 지구대는 가로수 또는 불법 옥외광고물 등에 의해 표지판이 가려 보이지 않는 곳은 지자체 협조 신속히 시인성을 확보하도록 조치했다.

강종삼 서림 지구대장은 "앞으로 정기적인 교통시설물 점검을 통해 도로이용자의 안전운행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확보하여 교통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부안=이옥수 기자

김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워크숍

김제시(시장 이근식)는 19일 삼성생명 전주연수원에서 부서별 담당 공무원과 전문가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과제발굴 워크숍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2017년부터 5년간 지속 가능한 여성친화도시 추진 전략을 반영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전북연구원 조경숙 박사를 비롯한 이주연 박사, 젠더 사회문화연구소 조혜경 박사, 박재규 센터장 등 4명의 전문가 그룹이 초청되었으며 시종일관 진지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수업시 여성문화공간 휴의 박재규 센터장은 '여성친화도시 정착에 대한 이해와 김제시의 추진방향'이라는 주제의 기초강연을 통해 남성과 여성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도시, 도시 공간계획에 성평등 관점을 반영한 도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갖춘 도시를 여성친화도시로 정의하고 수원시의 여성친화도시 정책사례를 열거하며 참가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김제=곽노태 기자

정읍보건소, 식품자등판매기 점검

정읍시보건소가 이달 1일부터 30일까지 식품자등판매기 155대에 대한 위생점검과 지도를 실시한다.

시민과 관광객들이 손쉽게 이용하는 자판기를 점검하여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보건소는 이를 위해 관계 공무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함께하는 2인 1조로 1개반을 편성했다.

주요 점검내용은 영업 신고 여부, 무허가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여부, 자판기 내부 하루 1회 이상 세척 여부, 옥외 자판기 차양시설 설치 여부 등, 일일 점검표 부착기록 여부, 자판기 전면 신고번호와 설명, 고장 시 연락처 등의 표시사항 부착 여부,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등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신규 모범음식점 신청접수

부안군은 관광부안을 대표할 수 있는 일반음식점을 육성하고 식품접객업소 위생환경 개선과 종사자의 서비스 수준 향상, 음식문화 개선 등을 위해 신규 모범음식점을 지정기로 하고 신청·접수를 받는다.

신청대상은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소이거나 지정이 취소된 전력이 없는 업소로서 모범음식점 지정을 원하는 업소는 오는 10월 14일까지 부안군청 미래창조경제과 식품위생팀(☎ 063-580-4312)과 부안군외식업지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에 따른 서식, 절차 등은 부안군 홈페이지(공지사항)에 게재돼 있다.

/부안=이옥수 기자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나서

김제시, 단열·창호·바닥배관 등 에너지 효율시공 및 고효율 보일러지원

김제시는 '2016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대상세대를 오는 30일까지 추가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또한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 임차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하지만 국민기초수급자 가정 중 주거급여자 자가는 이번 지원에서 제외된다.

사업내용은 시공지원으로 단열, 창호, 바닥배관 등 에너지 효율시공과, 물품지원으로는 고효율 보일러(가스·기름보일러)지원이며, 금액은 세대당 평균 150만원, 최고 250만원 한도에 추천을 하였으나 본 사업에 대한 호응도가 좋아 이번에 추가로 신청을 받게 되었다.

신청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

정과 차상위계층이며,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일반 저소득가정도 포함된다. 또한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 임차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하지만 국민기초수급자 가정 중 주거급여자 자가는 이번 지원에서 제외된다.

사업내용은 시공지원으로 단열, 창호, 바닥배관 등 에너지 효율시공과, 물품지원으로는 고효율 보일러(가스·기름보일러)지원이며, 금액은 세대당 평균 150만원, 최고 250만원 한도에 추천을 하였으나 본 사업에 대한 호응도가 좋아 이번에 추가로 신청을 받게 되었다.

신청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

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김제시에서 한국에너지재단에 추천 등록하고 시공업체에서는 대상가정을 찾아가 지원내역과 시공범위를 협의한다. 이때 주택소유주의 동의도 필요하며, 지원우선 순위에 따라 대상가정을 확정한다.

한일택 건축과장은 "김제시의 저소득가정의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해 전액 국고로 지원되는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지원대상세대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정읍시는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농촌마을 재생 발전계획 수립과 농촌 교량역 역량 강화, 공동체 네트워크 구축, 농촌일자리 창출 및 공동체 비즈니스경쟁력 강화 등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2017년도 시군 창의사업' 공모에 정읍시 선정

3년 간 총사업비 9억원 확보

정읍시가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2017년도 시·군 창의사업' 공모에 선정돼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9억원을 확보했다.

시에 따르면 시·군 창의사업은 소프트웨어 중심의 사업추진을 통해 주민역량을 강화하고 생활 공감형 지역공동체를 육성하며,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한 사업이다.

시는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농촌마을 재생 발전계획 수립과 농촌 교량

역량 강화, 공동체 네트워크 구축, 농촌일자리 창출 및 공동체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 등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김제시 시장은 "정읍 지역 공동체 발굴과 육성을 위해 설립한 중간지원 조직 운영에 따른 안정적인 기반을 확보함으로써 지역 공동체가 활발히 소통하고 발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읍시 공동체 활성화사업은 지난 2012년부터 시작했다.

시는 그간 정읍시민청안대회를 통해 264개의 공동체를 발굴했고, 단계별

지원전략에 따라 지원해왔고 현재 열매단계 27개, 줄기단계 35개, 뿌리단계 165개 팀이 활발한 활동을 하며 지역 활성화에 기여해오고 있다.

또한 선도적인 마을만들기 시스템과 공동체 육성사례가 전국적으로 소개되면서 정부부처와 전국 지자체들이 벤치마킹을 위해 정읍시를 지속적으로 방문해오고 있기도 하다.

특히, 지난 1일부터 3일 간 9회 마을만들기 전국대회를 성공리에 개최하는 등 전국 마을 만들기 선진적인 모델로서 자리잡아가며 롤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성덕면, 관광버스로 지평선축제 홍보

서울·경기지역을 누비는 관광버스에 플랜카드 부착

김제시 성덕면은 오는 9월 29일부터 10월 3일까지 열리는 '제18회 지평선축제' 홍보를 위해 지난 8월 말부터 김제출신 관광버스 기사가 소속되어 있는 (주)태림여행사에 협조를 얻어 지평선축제 홍보플랜카드 스티커를 제작하여 서울, 경기지역을 누비는 관광버스에 부착하였다.

이 버스는 주로 요커 등을 비롯한 해외관광객을 싣고 서울, 경기지역을 다니고 있어 차를 이용하는 관광객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지역 주민들에게

도 홍보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중앙청사, 광화문, 북촌한옥마을, 남산타워, 세종대로, 청계천, 뽕피프랑스, 남이섬 등을 다니며 내국인과 외국인 등 많은 사람들에게 지평선축제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버스가 이상훈씨는 김제중앙초 68회 졸업생으로 성덕면지역인 친구의 부탁으로 홍보맨이 되었다.

홍보를 부탁받은 이씨는 일반플랜카드와 축제홍보스티커를 받고 차에 부착가능한 스티커형 플랜카드와 흥

건단지 등을 요구했고 실질적인 홍보효과를 낼 수 있도록 양정서고 있다.

이미 4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최고의 반열에 있는 지평선축제가 세계로 뻗어 나가는데 있어 이씨와 같이 타지에서 활동하는 항우들이 발 벗고 나서준다면 지평선축제는 계속 커나가고 세계인이 찾는 축제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신형순 성덕면장은 (주)태림여행사 이봉준 전무와 이상훈 기사를 이번 축제에 초청했으며 축제장 이모저모를 소개하고 직접 느끼게 함으로써 앞으로도 계속 축제 홍보를 맡아 줄 것을 당부하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경찰서, 청소년 비행예방 선도활동 '큰 호응'

김제경찰서(서장 황대규)는 등·하굣길 학교 주변에서 배회하는 학생들을 조기 등교 유도하여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학교 후 배회하는 학생을 조기 귀가 유도하여 청소년 탈선행위를 예방하고자 '학교종이 뽕뽕'이라는 제목의 선도 순찰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학교 종이 뽕뽕' 선도순찰 활동은 노래 가사처럼 수업시작 전과 학교 후 청소년 흡연 등 탈선행위를 예

방하고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학교전담경찰관과 학교가 합동으로 통학로 주변을 등·하교시간에 맞추어 점검하고 있다.

아간에는 청소년 탈선이 우려되는 지역을 점검하여 위기·가출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을 발견하여 지역 사회 및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선도하는 시책으로 학부모와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황대규 서장은 "학교주변 등·학교

길 선도순찰 및 야간 취약시간대 청소년 비행우려지역 점검을 통하여 청소년 흡연 및 음주 등 비행을 예방하고 가출 및 학교 밖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을 강조하였으며 학생들의 흡연 및 음주 등 비행행위로 인한 주민 불안을 해소하고 학교폭력 예방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행사는 고부 놀제 풍년제를 시작으로 정읍시립국악단의 식전 공연과, 라인댄스, 트럼펫연주 등의 축하공연으로 이어졌다.

고부 두승산 청정 메밀축제 성료

올해로 10회째를 맞은 '두승산 청정 메밀축제'가 추석연휴기간인 지난 13일부터 16까지 4일 간 성황리에 열렸다.

두승산 청정 메밀축제위원회·고부 문화관광보존사업회 주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정읍시 후원으로 열린 행사에는 김생기시장과 유성엽 국회의원, 유진섭 정읍시의회 의장, 최나삼 부의장, 장학수·이학수 도의원, 이복형·고경운·황혜숙·안길만 시의원, 맹용인 고부면장 등 기관단체장과 고향을 찾은 귀성객 및 주민 관광객 등 3천여명이 함께 했다.

행사는 고부 놀제 풍년제를 시작으로 정읍시립국악단의 식전 공연과, 라

인댄스, 트럼펫연주 등의 축하공연으로 이어졌다.

특히 주간에는 벼 탈곡과 방아 찧기, 맷돌 갈기, 떡매치기, 투호놀이 등 민속경기가 진행됐고, 아간에는 품바 공연과 트로트가수공연, 시민노래자랑 등이 이어지며 행사장을 찾은 이들에게 흥미로운 즐길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해 호응을 얻었다.

여기에 불거리로 방아 찧는 토기와 시승 형상의 유등도 설치해 관심을 모았고, 지역 농특산물인 메밀과 흑미, 홍미, 잡곡, 고구마 등 판매장도 마련돼 지역특산물 홍보 효과는 물론 농가소득 증대에도 큰 도움이 됐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정발전 군민제안 추진

10월 7일까지 아이디어 공모

부안군(군수 김종규)이 국가예산 확보와 지역개발 및 정부 3.0 실현을 위한 창의적인 신규시책을 발굴하려고 군정발전 군민제안 공모를 추진한다.

공모주제는 '당신의 아이디어가 부안을 바꿉시다'이며 공모기간은 오는 10월 7일까지 진행된다.

공모대상은 부안 군정에 관심있는 군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방법은 우편이나 방문, 국민신문고(제안사이트), 부안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공모분야는 국가예산 확보 및 획기적인 지역개발 사업 제안과 부안군 인구증가를 위한 각종 시책, 각종 불합리한 제도나 법규에 대한 개선 방안, 예산절감·세수확보 및 소득을 높

일 수 있는 창의적 아이디어, 정부 3.0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 사회복지·문화·관광 등 군정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이다. 접수된 군민제안은 1차 심사와 2차 및 최종 심사를 거쳐 우수시책을 선정·시상할 계획이다. 우수시책으로 선정된 군민제안은 최우수상(1건) 30만원과 우수상(3건) 20만원, 장려상(5건) 10만원의 시상금이 주어지며 군정에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다.

부안군 관계자는 "군민들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수렴해 국가 예산 확보 및 지역개발의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부안에 오면 오복을 가득 받을 수 있는 '부래민복(扶來滿福)'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지평선 봉사대는 추석연휴 기간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김제지역에서 귀향객을 대상으로 무료 차를 제공했다.

지평선봉사대 향기로운 차한잔 봉사

추석명절 소외계층대상 중식 등 제공

김제지평선봉사대(회장 김정화)가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아 지역주민과 소외 이웃을 위해 다채로운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김제영광교회 식당에 400여명의 지역 어르신들을 초청해 추석맞이 어르신 위안잔치를 열었으며 추석연휴 기간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김제지역에서 귀향객을 대상으로 무료 차를 제공하면서 9월 29일부터 벽골제 일원에서 펼쳐지는 제18회 김제지평선축제 흥

보에도 주력했다. 특히 이번추석 귀향객 차분사역주인과 소외 이웃을 위해 다채로운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김제영광교회 식당에 400여명의 지역 어르신들을 초청해 추석맞이 어르신 위안잔치를 열었으며 추석연휴 기간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김제지역에서 귀향객을 대상으로 무료 차를 제공하면서 9월 29일부터 벽골제 일원에서 펼쳐지는 제18회 김제지평선축제 흥

/김제=곽노태 기자